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존재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㊵ '혼례대첩'(2023)



드라마 '혼례대첩'은 조선시대 명석하지만 연애 헛똑똑이 부마 정우와 연애 고수 양반댁 며느리 과부 순덕의 좌충우돌 중매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드라마다.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예로부터 혼례를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큰일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평균 수명 80세를 넘긴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어림잡아 30세 즈음 결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평균 수명을 80세로만 잡아도 50년 이상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반려자다. 성인이 된 이후의 거의 모든 삶을 함께하는 셈이다. 그러니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혼례, 즉 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반쪽처럼 딱 맞는 금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결혼까지 골인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것은 어느샌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죽음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의 연을 맺는 일에 '집안'이라는 것이 얽혀서 한층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양가의 격이 안 맞아서'라거나 종교적인 이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 등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청춘들을 종종 본다. 조선시대의 재혼 문제를 거론하는 드라마 '혼례대첩'을 살펴보자.

두 살에 천자문을 떼고 다섯 살에 시를 지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와 누구든 한 번 보면 돌아보게 만드는 외모를 가진 심정우(배우 로운).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우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정우는 늘 맞는 말만 하는데 정우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매번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열일곱 되던 해 봄,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한 정우는 평양부 서윤에 부임하기로 예정됐지만 공주와 급작스럽게 혼인하면서 벼슬길에 나설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혼례식을 치르는 중에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공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우는 그야말로 청상부마가 되고 만다. 이후 정우는 혼인 무효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자신같이 뛰어난 인재를 나랏일에 쓰지 않으면 조선 최대의 자원 낭비라는 이유를 대면서, 정우는 그렇게 매일같이 혼인 무효 상소를 올리는 생활을 어언 8년째 하고 있다. 공주의 남편인 부마는 재혼은커녕 첩도 들이지 못한다. 혼례는 올렸으나 첫날밤도 치르지 못한 데다가 철저한 '유교 보이'였던 정우는 천생연분의 커플들만 보면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짜증이 솟구친다. 사람들은 정우의 증세가 '울분'이라며 정우를 '한양 최고의 울분남'이라 부른다.

무신 집안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정순덕(배우 조이현)은 여자가 글을 배워 뭐하냐는 소리를 듣는 시절에도 꿋꿋하게 글을 배워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졌다. 특히 연애소설을 두루 섭렵하다 보니 현실 속에서 쉽게 짝을 찾기 어려웠다. 또 무신 집안 딸답게 남몰래 무술을 배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월담과 달리기 실력을 갖췄다.

그렇게 스물두 살까지 혼인을 못한 원녀(노처녀)였던 순덕은 세책방에서 잘생기고 다정한 동갑내기를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 혼인을 했다. 상대는 무려 좌상 댁 둘째 도련님.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은 혼인 반년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순덕은 청상과부가 되어 시댁 별채에서 격리 아닌 격리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순덕을 둘러싼 괴담이 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좌상 댁 둘째 며느리가 외로움에 사무치다가, 8년 전에 자결한 맏며느리 귀신에 씌어 밤마다 머리를 벽에 박아 이마에 피 칠갑을 한다는 것이다.

소문이야 어찌됐든 누구보다 활동적인 순덕은 별채에 지내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순덕이 선택한 것은 이중생활. 방물장수 여주댁의 이름과 신분을 빌린 순덕은 한양 최고의 중매쟁이 여주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는 세자빈 간택 문제를 놓고 왕과 신하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의 세자를 폐위하고 진성군을 왕으로 추대할 속셈인 좌상이 전국에 원녀(노처녀)와 광부(노총각)가 넘쳐난다는 이유로 세자빈 간택을 반대한 것. 은밀히 사정을 알아본 임금은 이러한 명분을 정우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우에게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한다. 도성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괴팍하기로 소문난 원녀들인 남산골 맹 박사 집 세 딸의 혼례를 정우가 나서서 두 달 안에 성사시키라는 것이다. 성공하면 공주와의 혼인을 무효로 해주겠지만 실패하면 세자빈 간택을 방해하고 임금을 기만한 죄로 사약을 내리겠다는 엄포였다. 목숨이 걸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정우는 중매의 신 여주댁과 함께 절대로 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세 원녀의 혼례 대작전에 나선다.

세 원녀의 짝 찾아 고군분투 중매 드라마
혼례 날 죽음 맞은 공주 미스터리도 담겨
양반 정략결혼 비판 · 주체적 여성 사랑도
결혼, 반쪽 채움 아닌 온전한 존재 간 인연



드라마 '혼례대첩' 포스터. 사진 출처=KBS

드라마 '혼례대첩'은 조선시대 청상부마 심정우와 청상과부 정순덕이 세 원녀의 짝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중매 코믹 멜로드라마다. 그런데 단순한 코믹물이 아니라, 8년 전 정우와의 혼례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공주 사건의 내막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함께 담고 있다.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중매 이야기인 만큼 드라마에는 '쌍연술사'라는 독특한 사람이 등장한다. 사람 사이의 연분을 감지하여 천생연분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쌍연술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는데, 심하게 앓고 난 뒤에는 남들의 짝을 이어주는 중매를 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순덕이 중매의 신 여주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순덕이 사실은 쌍연술사였기 때문이다. 커플들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났던 정우의 증상 역시 울분이 아니라 쌍연술사로서의 능력이 발휘돼 연분인 남녀를 한눈에 알아봤던 것이다.

드라마는 연분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조선시대 양반가의 정략결혼을 비판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집안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또한 사랑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면서 "당신이 태어나 단 한 번 용기를 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두 주인공을 통해 정조와 정절을 강조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재혼 문제를 진지하게 꺼내 든다.

특성상 자유연애를 표방하는 드라마는 사랑을 향한 여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학식뿐만 아니라 새총을 다루는 실력과 빛나는 기지와 용기를 갖춘 맹 박사 집 첫째 하나(배우 정신혜)는 세자의 목숨을 구한 인연으로 세자빈이 되고, 셋째 삼순(배우 정보민)은 한성부 종사관 정순구(배우 허남준)에게 먼저 청혼을 하기도 한다. 드라마의 이러한 주제의식은 특히 자결을 종용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순덕의 말에 압축돼 있다.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방님이 사랑한 모습 그대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이를 좋아한다고 하여 서방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전해준 은장도로 옷고름을 자르며 선언한다. "조씨 집안 며느리로는 죽겠습니다. 하지만 정순덕은 결코 집안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인연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흔히 인연을 찾을 때 '영혼의 반쪽'이나 '소울메이트'를 찾는다고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야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설법을 듣는 법석에서는 모두가 같은 삼매에 든다. 법회 때 법문을 듣기 전에 잠시 입정에 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참석자 모두가 빠짐없이 같은 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배우자는 나에게 없는 장점이 많아서 나를 채워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 여기서 좋은 사람은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모두를 부처로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 불교적으로 '잃어버린 반쪽'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존재일 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